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26:1-7  
2026년 2월 15일 오전 11시

## 열린 성문과 들어갈 백성

< 주여 도우소서 >

성육신하신 말씀인 예수님께서서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임과 동시에 인간 저자들의 역사적·문학적 표현을 통해 기록된 인간의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도 있고, 노래도 있으며, 편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학 작품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 문학이란 장르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성서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장르입니다.

묵시 문학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드러내는 문학 형식입니다. 묵시 문학은 지금 악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주어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종말론적 표현이 ‘그 날’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때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날’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사 26:1).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 24-27 장을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온 인류와 우주에 대한 마지막 심판, 구원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4 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온 인류에게 행하실 심판을 예언합니다.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24 장도 예수님께서서 종말과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25 장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와 사망의 영원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6 장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1 절).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견고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 1. 열린 성문,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은 성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올림이라”(사 60:11). 고대의 성들은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저녁에 닫고 아침에 여는 것이 보통입니다. 허나 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 성은 밤에도 성문을 잠그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협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사 60:18). 그 날에 예루살렘은 이름 그대로 평화의 성이 될 것입니다.

평화의 성 예루살렘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재차 확인됩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계 21:25). 허나 성문이 열려 있다고 하여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 21:27).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미 없을 것임이라”(사 52:1).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믿음을 지키는 의인들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사 26:2). 신의를 지키지 않고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시 10:3).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10).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함으로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둘째,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심지(心志)는 마음 심에 뜻 지입니다. 마음에 품은 뜻이란 의미로 ‘양초 심지’할 때 그 심지가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쁠 때 뿐 아니라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건강할 때 뿐 아니라 병든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부유할 때 뿐 아니라 가난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 몸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 그들을 들이십니다.

반면 심지가 약한 자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기쁘고 건강하고 부유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슬픔과 질병과 가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들의 마음밭은 돌밭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싹은 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마 13:5-6). 심지가 약한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허나

말씀 때문에 환난이 닥쳐오면 곧 넘어집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마 13:20-21). 이렇게 심지가 약한 자들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 2.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도 이러하다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은 어떠하겠습니까?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그 문은 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4). 그렇지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눅 13:23-24).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사 26:4).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영원할 것 만 같았던 사랑도 우정도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니다. 영원할 것 만 같았던 권세도 화무십일홍에 불과합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은 花 (꽃 화), 無 (없을 무), 紅 (붉을 홍)을 써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십일 동안 붉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본토인들인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높임을 받는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시기심에 가득찬 그들은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허물을 살피다가 왕에게 참소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단 3:12).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단 3:13). 그래도 왕은 한번 더 기회를 준다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단 3:15).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진다는 위협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단 3:17).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 앞에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 3:18).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의 뜻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일단 살고 봐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다고 저렇게까지 합니까?

그런데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단 3:23).

### 3. 불 속에서도 찬양하는 심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70 인역 성경에 따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불길 가운데를 걸으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단 3:24, 70 인역 성경). 이후 아벳느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우치는 마음과 겸손하게 된 정신을 받아주소서. … 이것이 오늘 당신께 바치는 제물이오니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완전히 따르게 하소서 … 이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렵니다. 그리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당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뵈옵기를 갈망합니다”(단 3:38-41, 70 인역 성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마음과 정신, 즉 심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단 3:28). 그리고 더 높임을 받았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단 3:30).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주시고, 평화의 성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입니다.

셋째, 정직한 의인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사 26:7). 우리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가 정직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사는 사람의 앞길을 곧게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 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류 중 한 부류를 특히 강조하여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 21:27). 바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 9 계명을 범한 자입니다.

예를 들면, 나봇에게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해서 나봇을 죽게 한 자들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왕상 21:13). 이들은 아마 돈을 받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거짓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 장의 거짓말하는 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꾸며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고발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 평화의 성, 구원의 성 예루살렘에는 오직 정직한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신의를 지키고, 심지가 견고하며, 정직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살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